

저팬 니트의 자랑거리 - JBKS 2010의 전시품들 <4/5>

◎ 양말 및 기타 상품들 - 독자 기술로 부가 가치를 향상시켜

양말 존(zone)의 출품자는 2009년에 9개사였던 것이 11개사로 늘어났다. 일본 양말 공업 조합 연합회 이사장은 “양말은 아직 일본산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미리 짐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본의 양말 메이커의 기술을 재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역설하였다.

나라현(奈良縣)에 있는 스즈키 양말은 2010년에도 ‘고메누카(쌀겨 : 商品 brand名)’ 브랜드 하나로 시장 경쟁에서 승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독자 개발 섬유인 고메누카(쌀이 正米 狀態에서는 수년 동안 신선도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천연 성분을 和歌山縣 工業 技術 center의 指導와 오미 겐시<近江 絹絲>의 협조를 받아,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는 천연 성분으로 개발한 安全, 安心의 ecology 素材)와 각종 편성 기술을 집결하여 ‘멋쟁이 기분’을 내게 한 신소재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휴식을 테마로 양말이나 장갑, 레그(leg) / 레그 워머(leg warmer), 배두렁이, 페이스 마스크(face mask), 요가 팬츠(Yoga pants), 캐미솔(camisole : 여성 속옷의 일종), 레깅스(leggings) 등 폭넓은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번 전시회에서는 고메누카 상품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지만 이번 전시회에서는 실제 비즈니스(實際 business)로 이어가게 하겠다.’고 적극적이다.

사가현(佐賀縣)의 이이다 양말은 많은 여성들의 소원인 ‘매력적인 체형을 나타내는 것’을 보조하는 힙-업 거들(hip-up girdle)이나 체형 보정 탱크-톱(體型 補正 tank-top) 등의 언더웨어를 메인으로 출품하였다. 기능성을 높인 상품군의 마켓 평가를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창업 이래로 제품이 피부에 닿는 최초의 감각과 착용감이 좋은 기분을 더욱 높이는 상품을 만드는 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착압 타입(着壓 type)의 이너(inner) / 레그(leg) 상품은 봉제 가공 등으로 많이 제품화하고 있으며, 기계의 니트 기술을 올림으로써 착압 기

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기술을 확립하여 합리적(resonable)으로 제공하고 있다.

도쿄도의 마쓰자키(松崎) 매트릭스 테크노(matrix techno)는 각종 편기나 정형기(整形機) 등의 사절 교체 장치(絲切 交替 裝置)를 개발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독자적(獨立的)인 편기와 기술을 바탕으로 편포(編布) 생산으로부터 제품까지 일관되게 제안하고 있다.

“JBKS는 니트에 특화한 전시회로서 목적이 명확하고, 전번 전시회에서 신규 고객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하면서, 계속 출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는 타이즈(tights)나 레깅스(leggings), 양말, 장갑, 머플러(muffler), 모자(帽子) 등 여러 가지 니트 소품(knit 小品)을 제안하였다.

효고현(兵庫縣)의 닛폰 편물(日本 編物)은 상품 기획 제안부터 원사 수배(原絲 手配), 편성(編成), 가공 마무리, 비축 배송(備蓄 配送)까지 다 갖추고 있는 양말 메이커이다. ‘손님에게 부드럽고 스트레스(stress)를 못 느끼게 하는 양말’을 테마로 기능성(機能性), 패션성(fashion性), 실용성(實用性)이 따르는 자사 기획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난 번 전시회에서도 많은 바이어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도 신상품과 함께 관심이 컸던 상품을 중심으로 출품하기로 하였다. 특허를 받는 데에 공을 많이 들인 신축성이 있는 편성으로, 기분 좋은 피트감과 쾌적하게 신을 수 있게 만들어진 양말을 소개하려 하고 있다.♣